



2021년 9월 둘째주일

“기름과 향”

출애굽기 30:22-38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통 487장)

1. 하나님은 “상등향품”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값비싼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은 관유를 성막 모든 기구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 왕,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의 일을 수종들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하나님은 다양한 향을 가져다가 섞어 거룩한 향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향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향은 다양한 기도를 말씀합니다. 회개, 감사, 찬양, 간구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